

# 난 괜찮아!

(전신 발작형 간질)

D씨가 초조한 눈빛으로 병실을 헤맨다. 그녀는 40대의 좀 뚱뚱한 편에 속하는 여자 환자로 얼굴은 오랫동안 약을 먹은 기운이 역력하여 좀 부은 듯한 인상을 하고 있으며, 웃을 때면 위아래 앞니가 고스란히 빠지고 없는 것이 허전한 느낌을 주었다. 그것은 오랜 기간 간질 발작을 일으켜 왔던 환자에게서 흔히 보는 험난한 인생 역정의 발자취 같은 얼굴 표정인 것이다.

그녀는 곧 자리를 잡고 얇은 담요를 한 장 거머쥔 채 드러눕듯 쓰러졌다.

그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하여도 그녀가 지금 간질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갑작스레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바리움(Valium)을 채운 주사기를 가지고 병실 문을 열고 그 뒤에야 동료 환자가 뛰어와서 “선생님, D씨가 또 쓰러졌는데요”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는 사이 D씨는 이미 팔다리를 꼬뚱거리며 간질의 마지막 단계까지 마치고 있었다.

주사기를 들고 다가간 간호사를 바라보며 그녀는 말없이 웃을 톡톡 털었다.

“괜찮으냐?”고 묻자 그녀는 씩 웃으며 “괜찮아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더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경험이 적어 어리둥절해 하는 젊은 간호사를 오히려 위로하듯 하는 말투였다.

그녀는 10대 초반부터 반복적인 간질이 시작되었던 만성 환자로 그 때문에 중학교를 중퇴했다. 그 후 집안에서 굶도 해보고 민간요법을 써 보기도 하였지만 결국 같은 증상은 더욱 자주 반복되었고 그 때문에 그녀는 집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앓은뱅이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녀가 정신 병원을 찾게 된 것은 쓰러지는 증상보다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상한 정신병이 생겨 버렸기 때문이었다.

날이 갈수록 성질이 날카로워지던 그녀는 사소한 문제로 “부모가 자신을 다른 형제와 차별한다”며 난동을 피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명히 간질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질을 하는 것처럼 쓰러지며 울고 욕설을 내뱉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눈을 ‘허영계’ 뜨고 자신의 방에 있던 이부자리를 가위와 면도칼로 모조리 찢어발겨 버렸다. 부모가 그것을 발견하고 말렸을 때 그녀는 실성한 사람이

되어 면도날을 휘둘러 대었다고 한다.

딸자식이 간질 환자에다 정신병이 있다고 믿었던 부모는 그때까지 쉬쉬하며 몰래 간질 환자의 치료 기관인 '장미회' 약을 타다 먹이고 있었지만 간질은 조절되지 않았고,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어 입원을 시킨 것이었다.

그녀는 반복되는 간질 발작으로 인해서 이미 상당한 정도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를 보였으며, 특히 숫자의 개념이 거의 망가지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말에 의하면 간질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몹시 똑똑하고 잇속이 빠른 아이였다고 한다.

그녀는 반복되는 간질 발작과 그때 동반되는 호흡의 정지로 말미암아 심한 뇌 기능의 손상이 왔을 뿐 아니라, 오래 반복되는 의식 상실과 대인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한 좌절감의 연속으로 이판사판이라는 식의 심리 상태에 빠져 있었다. 간질성 황폐화(Epileptic deterioration)를 겪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는 입원 후 항 경련제 뿐 아니라 정신병 증상과 인격의 황폐화를 교정하기 위한 항 정신병 제제가 병용되었고 그 후 쉽게 날뛰는 난동의 상태는 어느 정도 교정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간질은 반복되었다.

그녀는 발작이 오기 전 코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위장이 뒤틀러 오는 일정한 전구 증상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을 잘 감지한 그녀는 '냄새가 날 때면' 으레 안전한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이상한 것은 보통 간질 환자들이 발작 후 보이는 간질 후 혼동 상태를 그녀는 거의 겪지 않는다는 것과, 동시에 근육의 불 수의적인 경축 후에 발생하는 두통이나 근육통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는 간질로 인해 정신 기능이 황폐화되어 가긴 하였지만 동시에 나름대로의 적응 방식이 습득되어진 듯하였다. 대형 정신병원은 그녀에게 비교적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었다.